

취업·창업 가이드북 다양해졌다

대상 차별화로 구체성 획득... '자영업' 관련도서 특히 많아

본격적인 취업시즌을 앞두고 미래의 유망직업들을 소개하면서 실제취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은 취업안내서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사업'에 대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가게에서부터 대리점이나 체인점, 그리고 규모가 큰 오피스나 중소기업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의 '모든 것'을 담은 단행본들도 재빠르게 등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후자의 경우, 보다 윤택한 생활을 위해 적당한 부업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나, 정년퇴직을 앞두고 노후생활을 계획하는 장년·노년층, 또는 봉급쟁이가 '체질'에 안맞아서 자기사업을 꿈꾸는 샐러리맨, 그리고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난 다음 자신의 일을 시작해보려는 주부들과 승산없는 취업경쟁보다 실속있는 소점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미혼여성 등 대상을 분명히하여 필요자금, 창업방법, 주의할 점, 성공비결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기왕의 막연하던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며 각급의 한 출판경향을 이루고 있다.

현재 시내 대형서점에 선보이고 있는 이런 류의 단행본들은 30여종 정도. 이중 절반 이상이 올 6월 이후 출간된 책들이어서 '자영업'에 대한 일반의 높은 관심을 반증하고 있다.

올들어 30여종 이상이 선보여

본격적인 취업철을 앞두고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보인 신간은 3~4종. 이들은 미래 산업사회의 변화추이를 관측하면서 유망직종들을 집중 소개하고 있

본격적인 취업시즌을 앞두고

미래의 유망직종을 소개하면서

실제 취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은

취업안내서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가게에서부터 중소기업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에 필요한

정보의 모든 것들을 담은 책들도

다투어 등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 특히 직업에 대한 진로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대한 전문서적 또한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취업지도교사나 학부모들에게도 지침서가 되게 했다.

대표적인 책들로 「이런 직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변하는 세계와 2000년대 유망직종」(나라)은 제목에서 보여지듯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쇠퇴직업과 성장직업, 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직업변천에 비추어본 향후 유망직종들을 예측했다. 「미래를 위한 직업선택과 개척」(스몰비즈니스)은 적성·흥미·능력테스트에 비중을 두어 진로결정을 못해 고민하는 학생,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성에 맞지않아 전직을 생각하는 사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되게 꾸며다. 「취업준비를 위하여」(인재정보신문사)는 연세대취업담당관으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해왔던 김봉주씨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



으로 엮은 책. 고학력 구직난의 원인을 진단, 대책을 강구했다. 취업이 당연한 대학생들 및 인문계 고등학생, 그리고 이들을 지도할 교사 등이 대상. 특히 여대생들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관행 극복방안과 실제적인 취업전략을 담은 점이 특징. 이들 취업지침서들은 공통적으로 여전히 인기있는 전문직의 소개 및 자격증, 시험과목 등을 부록삼아 실고 있다.

'소자본으로 성공하는 비결'류가 큰 인기

아무래도 최근의 눈에 띄는 징후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창업가이드북들. 얼마전까지 경제지나 여성지에서 주로 시리즈물로 다루던 것이 독자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속속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중 가장 큰 인기를 끄는 것이 '소자본으로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일련의 책들. 대표적인 것이 경제부 일선기자들이 쓴 기사를

책으로 묶은 「적은 밑천으로 돈버는 이야기」(매일경제신문사). 80여개 점포의 경영사례를 업종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유망업종·안정업종·유행업종별로 소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분류한 점이 특징. 무조건적인 낙관을 앞도록 부정적인 전망도 동시에 실었으며, 소점포경영에 필요한 기초이론부터 성공비결까지 충실히 담고 있다.

「새로운 인생 내 가게」(심지)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점포와 대리점으로이분, 43개 업종을 소개했다. 또한 「대리점창업의 실제와 이론」(스몰비즈니스)은 원목가구점, 스포츠용품점, 침구점 등 대리점이나 가맹점과 같은 형태의 점포를 개설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대리점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대리점업의 특징, 성공과 좌절사례 등을 소개했다.

소점포가이드를 일부 담고 있으면서 여성들

하늘땅 시선 1

in the sto... aa Baa, P... ent on to... nited Se... with De... a new in... ated Kip'... orious pk... (1899) at... a remaned stories... the high... at goals of Engl... numult o... ing, bullying, and... is one o... g's great imaginati... aders rep... a strain... in his w... would re... was bro... sighted... this de... establish... of self-p... on. ... g retur... dia in 18... as a jou... lis paren... rtant, be... the best... ward thu... oportuniti... that... ll the wh... thronging...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남자가 될 것이다.

서강목 옮김

신국판/174쪽/값 2,500원

「키플링 시선집」

하늘땅 시선 4

동구혁명과 사회주의

현재 일본에서 연속중판되름!!

加藤哲郎 (가토 데쓰로) 교수의 명저

《출간예정》

A. 사하로프 회고록

소련의 현대사, 20세기의 거인

국내독점관련계약

동학농민전쟁 관련논문집 5개년 출간계획안내

기획/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 백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출판/도서출판 하늘땅

도서출판 하늘땅에서는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 백주년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오는 1944년 동학농민전쟁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농민전쟁에 관한 각종자료집, 논문집, 연구입문서, 답사보고서, 문예장작물 등을 기획출간해 되었습니다.

1차년도인 올해 1990년 하반기엔 우선 연구논문모음집 (상) (하)를 출간하고, 계속하여 5년간 농민전쟁의 역사적의미 고찰 및 실제전쟁 과정에 대한 과학적연구의 성과물들을 내놓게 됩니다.

생활총서 1

도서출판 하늘땅

정보를 알면 내집이 생긴다

내집마련 상담실편

4x6배판/144쪽/값 3,300원

연속중판 거둬

하늘땅 소설선 1

바늘반지

원명희 장편소설

신국판/312쪽/값 4,000원

연속중판 거둬

하늘땅 시선 3

인간에 대한 예의

바츨라프하벨 지음/이상영 옮김

신국판/240쪽/값 3,500원

하늘땅

맞춤법개정이 몰고온 혼란과 손실

휴지몽치가 돼버린 아동도서를 보며 생각한다

김시환

건지사 대표 · 아동도서출판협의회장

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과 취업가능한 기능직을 집중 소개한 책들도 눈에 띈다. 「뭘 좀 신나는 돈벌이가 없을까」(지하철문고)는 관광통역안내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 취득요령을 소개하고 있으며, 「여성취업 여성부업」(심지)은 역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업소개와 함께 학력제한없이 일정기술을 습득하면 취업가능한 '기능직'을 집중 소개한 점이 이채. 컬러믹스, 스크린인쇄사 등 미처 생각지 못한 직종이 다수 개발돼 있는 점이 신선감을 준다.

종로서적 경제서적 파트에 근무하는 강경숙(27)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소자본경영책자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으나 추천해줄 마땅한 책이 없던 차에 이런 류의 책들이 등장,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언젠가 자기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는 샐러리맨들을 위한 창업가이드북도 10여종 선보이고 있다. 조직을 떠나 독립하려는 개인에게 퇴사시기, 창업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히트 사업을 위한 모든 것들」(대산), 탈샐러리맨에서 사장이 된 이들의 경험담과 사업가로서의 자질체크, 아이디어 발상법,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 등 창업에 필요한 요소들을 담은 「창업, 준비에서 성공까지-5년내 독립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탈샐러리맨학」(지하철문고) 등이 대표적이다. 또 「4백만원부터 1천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대산)은 점포를 이용한 사업이 아닌 아이디어로 승부를 건 120여개의 유망업종을 집중 소개하고 있으며, 「체험으로 쓴 탈샐러리맨 작전」(풀잎)은 독립을 선언한

샐러리맨 중 심중팔구가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지를 분석한 한 사업가의 성공담을 담았다.

“프론티어정신 무모하게 자극” 지적도

이보다 규모가 좀더 큰 중소기업 창업의 지침이 될만한 책자도 여럿. 「조그맣고 알찬 회사의 창업과 그 경영비법」(대산) 「중소기업 성공의 노하우」(한국생산성본부) 등은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탈피, 어떤 경영철학과 기술을 갖고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소규모무역을 시작하려거나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판상의 정확한 개념에서부터 창업·운영절차 등을 소개한 「오판상으로 성공하는 방법」(운문)은 이와 관련한 단행본으로서의 처음이어서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책.

이처럼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자영업 관계서적들의 출간분에 대해 「돈포드폴리오」박문열 차장은 “사회가 보다 개성화 다양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당연한 욕구들로, 이에 따른 구체적 정보를 주는 단행본의 출간분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러나 시류를 타고 흥행을 목적으로 부실하게 꾸며, 프론티어정신을 무모하게 자극하는 문제있는 책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잡지에서 무단전재하거나 이것저것 조합해 묶어낸 책들도 적잖이 눈에 띄는 것이 이러한 실용서들 가운데 끼인 ‘티’들이다.

— 정혜옥 기자

휴지몽치가 되어버린 책이라니, 휴지가 될 정도로 낡아서 버리지 않으면 안될 헌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어느 쓰레기더미에 버려져 있는 멀쩡한 책을 빗대어 하는 말도 아니다. 맞춤법이 바뀌면서 못쓰게 된 멀쩡한 책을, 출판사 스스로 쓰레기나 다름없이 버려야 할 책을 이르는 말이다. 거의 모든 도서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아동도서는 ‘...읍니다’가 ‘...습니다’로 바뀌는 통에, 개정맞춤법 시행 전에 나온 책은 모두 못쓰는 책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그 책을 만드는데 쏟은 정성과 자금과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댓가는 고사 하고, 쓰레기가 된 책을 바로 보며 가슴만 죄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쉴 뿐, 속수무책이다.

광복이 된 지 45주년인 지나는 동안 정부는 몇 차례 표기법, 철자법을 고쳤다. 그런데도 어문정책은 아직까지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이번과 같은 맞춤법 개정으로 또 혼란과 손실을 가져왔다.

시대에 맞게 말과 글을 다듬고 고치는 일이 백만 옳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 연후에 시행하는 것이 개정하는 일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경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행에서 오는 혼란이나 충격,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의 유예기간을 두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 몇십년 만의 개정되면서 겨우 일년 동안의 유예기간만으로 시행하였으니, 이미 그 전에 서점에 나가 있던 책은

물론, 재고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짧은 유예기간 내에 판매되지 않은 책은 당연히 못쓰는 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아동도서는 일반도서와 달라, 출고되어 대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은 걸려야 다 팔리거나 아니면 출판사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맞춤법이 개정되기 1, 2년 전에 출고된 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독자의 손에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없고, 서점에 꽂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아동도서 출판사가 입는 손실은 더 크고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번 맞춤법 개정으로 출판사가 입을 손실이 몇천억원은 되리라는 추산이다. 이런 거액이 쓰레기로 바뀌다니, 이것을 어찌 출판사만의 손실로 볼 수 있겠는가.

고민은 또 있다. 이런 책의 처리문제이다. 멀쩡한 책을 쓰레기로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 책이 없어 못 읽는 곳이라도 보내고 싶지만 못 쓰는 책을 보내는 것이 되니 내키지 않는다. 또, 헌책이나 파지를 잘 가져가지 않으려는 세상으로 바뀌었으니 버리는데 힘들다.

‘...읍니다’가 그대로라고 해서 뜻이 달라 질 리가 없고, 독서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니, 국가적 손실을 생각해서라도 개정 시행 전에 출판된 책은 당분간 그대로 유통되었으면 한다.

맞춤법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다. 언젠가 또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할지,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하늘땅 신서 4

동구혁명과 사회주의

가도 테즈로·지음 허태유·옮김

동구혁명인가, 변혁인가!

1989년 동구 사태를 혁명과 변혁의 관점에 의해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에로의 이행인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전환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로서 가도 테즈로는 일상 생활 속의 평화 혁명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동구 사태 전반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이 책에서 체계화해내고 있다.

신국판/285쪽/값 4,000원

국내독점 판권계약

도서출판 하늘땅

한 사회민주주의자가 체계화해낸 세계사의 흐름

슈퍼이웃

일본이 뛰고있다

김익균 지음

세계 어느 나라의 보호무역장벽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일본 상품의 위력 - 그 세계 최강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일본 기업들의 이윤 특급열차를 타고 떠나는 64메가D램 일본 경제의 실상을 통해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한다

신국판/378쪽/값 4,500원

긴급진단

매일 경제 동경특파원이 쓴 신일본 경제기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6-39
TEL/764-4398 (편집부), 764-4957 (영업부)
FAX/743-0541